운곡서원, 雨中에 엄숙행사

재숙중에 경주·안강청장년회도 열려

▲ 운곡서원 강당에서 집사분정례를 행하고 있다.

▲ 사당 경덕사의 섬돌에서 사축례를 행하고 있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사라동 운곡雲谷에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윤공파 19세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 선생과 23세 귀봉공龜峰公 권덕린權德麟 선생을 배향配享한 운곡서원雲谷書院 경덕사景德祠가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며 경산·영천을 지나 건천 인터체인지에서 포항행으로 갈라져 가다 왕신 나들목에서 빠져나가 경주 방향으로 20번 도로를 타고 가면 왕신저수지가 나오고 저수지 중간쯤에서 왼편으로 운곡서원 유도표지판이 나온다. 여기에서 운제산雲霽山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청수골에 운곡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로서 세일사歲一事 정일定日인 4월 7일 축초丑初 01시에 금년 향사가 봉행되었다.

전일인 4월 6일 평명平明에 입재入齋가 시작되어 중식후인 오후 2시에 서원의 강당 정의당正懿堂에서 집사자를 나누어 정하는 분방례分榜禮를 행하였다. 그 분정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유학幼學 이대식李大植
아헌관 : 유학 손만호孫萬鎬
종헌관 : 유학 권순화權純和
대축 : 윤의홍尹儀洪
찬자 : 한영길韓永吉
알자 : 권기호權奇澔
찬인 : 권혁조權赫照·권순담權純湛
판진설 : 권구만權九滿·권만택權萬宅·권혁종權赫宗·권혁무權赫武
사준 : 최현재崔鉉在
봉로 : 권창궤權昌軌
봉향 : 권상수權相守·권진택權鎭宅
전작 : 권오군權五群·권혁웅權赫雄
장생掌牲 : 권주혁權珠赫·권혁준權赫俊
장찬掌饌 : 권오환權五煥
관세위盥洗位 : 권상윤權祥玧
학생 : 권재호權在浩
직일直日 : 권오찬權五燦·권혁광權赫光
공사원公事員 : 권혁문權赫文·권오술權五述
조사曹司 : 최성도崔晟燾·이호우李虎雨

집사분정이 이루어지고 헌관 이하가 음복을 행한 후 당의 북벽에 분방지分榜紙가 게시되었다. 오후 4시 30분에 초헌관 이하가 서원의 사당 경덕사景德祠 안으로 들어가 섬돌에서 축문을 쓰는 사축례寫祝禮를 행했다. 사축례를 필하고 나서는 전참제원이 강당과 협실 및 각재실에 들어 석식을 하게 되고 석식 뒤에는 시간을 격하여 야화夜火를 들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재숙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8시 30분부터 주사廚舍의 재실에서는 경주청장년회와 안강安康청년회의 회의가 열렸다. 이 지역 청년회의 회원들은 매년 운곡서원의 향사에 다수가 참여하여 이것저것 수발을 들어 유림과 후손 참제원을 시중하며 행례의 의절을 익히고 있다. 특히 경주청장년회는 5월 4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안동권씨전국청년체전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터라 이에 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현재의 가용인력을 대외섭외팀·기획홍보팀·시설관리팀·경기운영팀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체계적으로 행사에 대비키로 하는데 대회를 마칠 때까지는 월례회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모여 문제점을 점검해 조정하고 경주시내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하기로 논의하고 있었다.

축시丑時의 초가 되는 새벽 1시에 맞춰 제향 준비가 모두 완료되고 경덕사의 내삼문內三門인 묘정廟庭에 헌관 이하가 도열하여 행례가 시작되었다. 마침 봄비가 왔으나 행사는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필하고는 모든 참제원이 각자의 재숙실로 들어가 숙면을 하고 음복은 전례에 따라 아침 8시에 하게 되었다.

운곡서원은 정조 8년, 1784년에 역내의 후손과 유림이 이곳에 추원사追遠祠를 세워 시조 태사공을 주향하고 죽림·귀봉 양공을 곡배향曲配享하는 원사院祠를 받들어왔는데 고종 5년, 1868년에 이르러 흥선대원군의 금령으로 훼철되었다. 그 30여년 뒤인 광무 7년, 1903년에 그곳에 단유壇 를 설하고 다시 제향을 받들어 오다가 다시 70여년이 지난 1976년에 이르러 서원을 중건하여 향의鄕議에 따라 운곡서원雲谷書院으로 개액改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경덕사를 비롯하여 강당 정의당에 동서협실 돈교재敦敎齋와 잠심재潛心齋가 있고 그 앞마당 양쪽에 동서재東西齋가, 그리고 외삼문으로 견심문見心門이 있으며 훼철되지 않았던 부속 주사廚舍가 오히려 고건물로서 문화재가 되고 있고 경내이지만 서원과 별도로 서 있는 정사精舍 유연정悠然亭이 지방문화재이다. 또한 유연정 곁에 서 있는 노거수 은행나무 압각수鴨脚樹는 경주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운곡서원은 경주지역의 좌윤공파佐尹公派 국당菊堂문중과 귀봉공문중에서 본손유사本孫有司가 나와 윤번으로 운영 및 행사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임유사 권상률權相律씨와 원임유사 권혁광權赫光씨가 협의하여 여러 일을 주선하고 있었다. 권혁광 전유사는 현재 지방도에서 서원까지의 진입로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비가 시당국에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서원 바로 아래의 다리까지 2차선의 포장도로가 개설된다 하였다. 운곡서원에서는 다리 안쪽에 있는 주차장의 포장정비 공사도 그 사업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진 · 글 權奇允>

▲ 시조 태사공위에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 경주청년회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2면에서 계속

진설되는 것을 살펴보자니 그 실과 가운데 감이 빠져 있었다. 필자가 마침 재유사齋有司에 들어 있던 터라 걱정스러워서 이를 문의하자 감제監祭하는 유사가 시조 향사에서는 감을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뒤에 상석에 까는 진설도판陳設圖版을 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시柿'라고 명기해 놓은 자리가 있었다. 행례중에는 창홀과 독축에 확성기를 사용하였는데 기기의 성능이 좋지 못하며 제관도 많지 않고 하니 잡음을 내지 않도록 육성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집례자가 이를 일축하고 강행하다가 도중에 확성기에서 사람도 소스라치게 하는 괴경음이 간단없이 질러나와 경건한 제향의 분위기를 해치는 게 민망스러웠다. 이에 참제 후손들이 위축되며 송구스러워하였다.

삼헌작 후에 헌관 이하 제자손이 재배로 사신례를 행하고 예필禮畢 후에는 초헌관과 축관 등이 묘좌로 이동해 산신제山神祭를 행했다. 산상에서의 행례를 모두 마친 헌관 이하 제자손이 하산하여 재사의 추원루에 다시 열좌해 음복례飮福禮를 행했다. 다음 초헌관이 수임실首任室로 돌아와 입실하는 것을 기다려 차기 수임 도유사都有司와 재유사齋有司 6인에 대한 망기望記가 작성되었다. 가을 음력 10월 중정일中丁日이 되는 다음 향사의 수임에는 부산의 검교공파 32세 권종갑權宗甲씨가 천망되었다.

<사진 權奇允 · 글 權在琮>